

장-클로드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

박 인 철

1. 머리말

장-클로드 코케 Jean-Claude Coquet는 그레마스가 선도한 ‘파리 학파 Ecole de Paris’ 내에서 2인자의 자격으로 그레마스와 더불어 E.H.E.S.S.-C.N.R.S. 소속의 ‘기호언어학 연구팀 Groupe de Recherche Sémiolinguistique’에서 여는 세미나를 주재하며 이 학파를 전세계 기호학계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기호학자이다. 특유의 깔끔한 문체와 명쾌한 논리로 누구보다 앞서서 기호학 입문자에게나 일반 독자에게 다소 무미건조하고 까다로운 그레마스의 이론을 문학 텍스트의 분석을 적절하게 실패로 들어 흥미있게 — 그렇다고 결코 통속적이지는 않은데 — 소개하고 정리한 것도 그의 공적이라면 공적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Coquet, 1973: 1983).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점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그는 그레마스의 이론에 대해 거리를 취하며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갔으며, 마침내 그의 이론과 정면 대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각각 ‘양상 문법 시론 *Essais de grammaire modale*’과 ‘양상 문법의 실제 *Pratique de la grammaire modale*’라는 부제를 단 그의 국가 박사 논문인 두 권의 『담화와 그 주제 *Le discours et son sujet*』(Coquet, 1984: 1985)가 그레마스의 영향권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면, 그 후에 나온 논문들은 한결 같이 '주관의 기호학 *sémiotique subjectale*' 이라는 명목으로 선포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담화 *discours*의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담화 그 자체의 내적인 조직을 규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담화를 산출한 발화 주체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관점이다. 코케의 '양상 문법'은 주로 전자에 관련된 것으로 이 문법은 'vouloir, pouvoir, savoir, devoir'로 대표되는 양상 동사 *verbe modal*와 기호학에서는 'être, avoir, faire'로 대표되는 기술 동사 *verbe descriptif* 혹은 설화 동사 *verbe narratif* 사이의 위계 관계를 다룬다.¹⁾ 코케는 양상의 차원 *dimension modale*을 담화의 기술면 *plan descriptif*을 조직하고 포섭하는 "안정된 형태의 영역 *zone morphologie stable*" (Coquet, 1987a: 93)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양하게 실현된 개별 담화에 내재해 담화의 의미를 조직하는 "담화의 변함없는 지주 *support constant du discours*" (Coquet, 1984: 195)로 간주한다. 따라서 "하나의 양상의 차원은 의미 세계의 각 부분의 성격을 규정지으며, 행동자 *actant*는 [……] 그가 어떤 양상의 차원과 결합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ibid.*, pp. 93~94). 코케는 양상의 차원과 양상의 동위성 *isotopie*

1) 양상의 개념은 문의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지배할 때 지배하는 요소는 양상적인 요소이고 지배당하는 요소는 기술적 요소라는 데에서 비롯한다. 양상 동사와 기술 동사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왕의 신분, 즉 그의 존재 *être*, 소유 *avoir*, 행위 *faire*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이의 토대가 되는 능력 *pouvoir*에 있다. 역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Je peux tout*"라는 발화 문으로부터, 종합적인 관점에서, "나는 일체이다 *Je suis tout*" "나는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 *J'ai tout*"를 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Coquet, 1976: 68). 아울러 양상 동사들 사이에서도 위계 관계가 존재한다. 'pouvoir'와 'savoir'를 예로 들면, 플라톤의 현자 왕은 국민을 이끄는 그의 'pouvoir'가 'savoir'인 정치술에 좌우되므로 'pouvoir'가 'savoir'를 전제하는 경우이고, "정의는 힘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외치는 클로델의 *Tête d'Or*의 주인공은 정의를 포섭하는 'savoir'가 힘을 포섭하는 'pouvoir'를 전제하는 경우이다 (Coquet, 1984: 31).

*modale*을 이용하여 행동자의 정체 *identité* 및 그가 실현하는 의미 행동 *parcours de la signification*을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양상 문법'의 이론 정립 후 코케가 그레마스의 이론을 재관의 기호학 *sémiotique objectale*,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주관의 기호학 *sémiotique subjectale*이라고 명명하고 두 이론을 대립시키면서부터 그가 독자적으로 개진한 담화 기호학 *sémiotique discursive*이다.²⁾ 우리는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두 이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코케의 이론의 핵심 개념인 '발화 기원 *instance énonçante*' 및 이를 바탕으로 그가 수립한 행동자 구조 *structure actantielle*를 주로 베네티니스트의 이론과 관련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
- 2) 코케는 이미 '담화와 그 주체'에서 행동자와 행동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과 그레마스의 입장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그레마스는 행동자와 행동자 사이의 관계를 연결 *conjonction*과 이점 *disjonction*으로 분절되는 집합 *fonction*의 범주내에서 다음으로써 이 관계의 불연속적 *discontinu*인 면만을 고려한다. 이것은 그가 행동자들이 형성하는 영역이 서로 고정된 경계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코케는 이 경계가, 예컨대 행동자 x가 행동자 y에 대해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케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불연속의 기호학 *sémiotique du discontinu*," 자신의 기호학을 "연속의 기호학 *sémiotique du continu*"이라고 부른다(Coquet, 1984: 75~76). 그가 "행동자 상호간의 대결 *conflit interactantiel*"에 대해 들고 있는 예는 두 기호학자 사이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불연속의 기호학에서 행동자들은 단속적 *discret*인 단위를 이루고 그 지위는 선택된 시점, 즉 대결 전, 대결중, 대결 후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이 문제를 연속성의 차원에 옮겨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립 관계에 있는 각각의 행동자가 점유하는 영역은 서로 가까워지고, 접촉하고, 간섭하고, 이어 두 물방울이 하나로 합쳐지듯 흡수된다"라고 주체와 대상을 연속적인 선상에서 파악하는 코케의 태도는 시간·공간 문제를 다루는 데 잘 나타나고 있다(1991a, 1991b). 필자는 코케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쥘리앙 그라크의 『시르트의 해변』을 분석한 바 있다(박인철, 1993).

2. 주관의 기호학과 객관의 기호학

프랑스 구조주의의 역사를 다룬 최근에 나온 어느 책은 코케가 주장한 '주관의 기호학'이 '파리 학파' 내에 일으킨 파문을 전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987년 『기호학 보고서 *Actes sémiotiques*』 88호에 게재된 코케의 논문 「언어학과 기호론 *Linguistique et sémiologie*」인데, 이 논문에서 코케는 기호학 이론의 기초를 다진 그레마스의 공적은 인정하지만 벤베니스트의 이론을 따르는 다른 기호학, 즉 그의 '주관의 기호학'의 장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레마스는 잡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위로 하나의 연구 방향을 비호하기보다는 이를 막는 길을 택했다. 그는 이 연구가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Dosse, 1992: 414). 우리로서는 여기서 어떤 한 편을 들어 논쟁에 휘말리거나, 더더욱 어느 기호학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 이론이 적용되는 타당성의 영역 *domaine de validité*이 다를 뿐이라는 말로 만족하기로 하고 '객관의' 나 '주관의' 나 하는 용어가 유래한 연원부터 살펴보자.

문제의 논문에서 코케는 그레마스와 쿠르테스가 『사전』(Greimas, Courtés, 1979)에서 정의한 기호학의 기초를 상기시키면서 그의 기호학을 'il'로 상징화하고 있다. 이 'il'은, 그레마스의 표현을 따르면, "말(馬)과 더불어 인간의 위대한 정복물 중의 하나이다." 사실 그레마스는 그의 『구조 의미론』에서 발화 주체의 주관성 *subjectivité*을 나타내는 발화 변수 *paramètre* — 벤베니스트가 '발화의 형식적 장치'라고 부른 것 — 는 텍스트의 의미 기술에 부적절한 것이므로 분석이 이 발화 변수를 기술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텍스트의 객관화 *objectivation*와 정상화 *normalisation*를 위해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하고 있다(Greimas, 1966: 153~54). 이러한 기본 방침

을 따르면 주체는 별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발화와 그 주체는 발화문 *énoncé* 속에서 그 자취를 찾아야 되는 의미 효과 *effet de sens*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객관의 기호학이 이론적인 바탕으로 삼고 있는 소쉬르, 그리고 특히 엘름슬레우의 내재주의 *immanentisme*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내재주의는 발현된 차원이 아니라 내재적인 차원에서 요소들의 관계 체계를 추출함으로써 추상적인 실체인 랑그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케는 내재주의의 타당성에 제약을 가한다. 관계 체계로서의 랑그는 분류 *classification*의 원리로서 언어학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언어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언어적 주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언어를 통해 주체는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랑그의 연구를 통해서만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코케는 구조언어학 내에서 내재주의가 배제하는 실재 범주 *catégorie réelle* 혹은 실적 *substance*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구조에 못지않게 중시하는 이론가들, 즉 야콥슨, 투르베츠코이, 브뤼달, 그리고 벤베니스트와 같은 실재론자 *réaliste*들을 내세워 내재주의자들이 배제했고 또 이들 때문에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영역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한다(Coquet, 1991). 특히 그는 벤베니스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벤베니스트는 20세기 중반 소쉬르의 전통을 따르는 구조언어학을 선했으면서도 동시에 실제 언어의 실현인 담화 속에서 발화 주체가 담당하는 역할 및 언어와 세계를 결합시키는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생전에 내재주의와 기능주의, 그리고 변형 문법의 그늘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위대한 인구에 학자의 발화 이론이 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한 것에 평행해서 코케는 '파리 학파' 내에서도 내재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객관의 기호학' 시대 다음에 벤베니스트의 노선을 따르는 '주관의 기호학'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레마스는 60년대 [내가 ‘객관의 기호학’이라고 부르는] 기호학의 창설자였다. 1970년대부터 벤베니스트의 영향 아래 ‘담화의 언어학’이 차츰차츰 발전하기 시작했다. 벤베니스트가 1967년 ‘의미론’이라고 부른 것은 실상 담화기호학을 예고한 것이었다. 객관의 기호학과 평행하게 다른 또 하나의 기호학, 이른바 ‘주관의 기호학’이 형성되었다”(Coquet, 1987b: 4). 여기서 코케가 주관의 기호학을 담화기호학이라는 명칭과 연관시켜 말한 것 역시 발화보다는 기호-설화 구조 *structure sémio-narrative*가 담화의 의미를 조직한다고 보는 그레마스의 기호학과 자신의 기호학을 대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코케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설화기호학 *sémiotique narrative*’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상 『사전』에서 그레마스는 그러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담화 구조가 발화 기원 *instance de l'énonciation*에서 비롯하고 이 최상의 기원이 설화문을 산출한 발화자의 지배를 받는다면 기호-설화 구조는 생산물이 생산 과정에 속하듯 담화 구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것은 심층의 설화 구조를 일체의 의미(단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가 출현하고 완성되는 기원이자 아울러 설화 수행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담화 능력을 분절하는 기원으로 보는 주장이다. (Greimas, Courés, 1979: 249)

코케는 그레마스와 달리 담화는 이를 “실현시킨 주체의 존재를 가정하는 조작의 산물”(Coquet, 1987b: 9)이므로 담화의 의미를 ‘주체가 담화내에서 차지하고, 옹호하고 추구하는 위치 *position*에 입각해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담화를 실현시킨 주체를 ‘발화 행동자 *actant énonçant*’라고 부른다. 발화 행동자에는 발화 주체나 서술자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나타난 연기자 *acteur*도 포함된다. 코케

에 따르면 “각각의 담화에는 중심이 있다”(Coquet, 1987b: 13). 이 중심이 이른바 발화 기원 *instance énonçante* 인데 발화 행동자는 이 발화 기원과 관련지어 자신의 담화를 발화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코케는 담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담화는 문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transphrastique* 차원 — 이러한 차원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어학자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 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발화 기원과 관계를 갖는 조직이다(Coquet, 1987a: 92).

3. 발화 기원

우리는 앞에서 담화의 의미는 담화 자체의 내적인 조직을 규명함으로써 파악되거나 아니면 담화를 산출한 발화 주체에 입각해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언어학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이 관점은 각각 ‘mode de re, mode de dicto’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실례로 중세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Oedipe voulait épouser sa mère’ (외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했다)라는 문장을 들어보겠다. 『현대 문법 *Arrivé et alli*』(1986: 61)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한다. 즉, 전통적으로 이 문장에는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과 ‘그는 그 여자가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외디푸스 신화는 이 문장에 대한 중도적인 독해를 유도한다. 그 여자가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외디푸스는 그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린다는 의미로 말이다. 무의식적인 충동에라도 의지해서 ‘de re’의 관점에서 문장을 해석한 예이다. 그러나 마르탱은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는 불투명 *opaque*한 문장과 투명

한 *transparent* 문장의 대립은 ‘믿음 세계 *univers de croyance*’ — “발화 시점에 화자가 참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이라고 믿게 하고자 하는 명제들의 무한 집합” (Martin, 1992: 38) —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서

1) Oedipe voulait épouser Jocaste(외디푸스는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고 싶어했다).

2) Oedipe voulait épouser sa mère(외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했다).

라는 문장들을 예로 들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과 2)는 이오카스테가 외디푸스의 어머니를 알고 있는 화자의 믿음 세계에서는 참이지만, 2)는 이오카스테가 자기 어머니임을 모르는 외디푸스의 신계에서는 거짓이다. 의도 동사 ‘vouloir(원한다)’는 외디푸스의 믿음 세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2)는 1)과 같을 수 없다” (*ibid.*, p. 39).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 이것은 ‘발화 기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도 적절한데 — “외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기를 원했다”라는 명제를 누가 취하는가 *prendre en charge*에 따라 진리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명제의 의미를 ‘de dicto’의 관점에서 파악한 예이다.

위의 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명제에서 명시적 주어 *sujet explicite* — 여기서는 외디푸스 — 와 이 명제에 잠재해 있지만 이 명제의 진리를 보장해주는 묵시적인 발화자 *énonciateur implicite*를 구분하는 것이 마땅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발화자가 문제되고 있는 것일까? 마르탱은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묵시적인 발화자가 코케가 말하는 발화 기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해두기로 하자.

코케의 발화 기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벤베니스트가 사

용한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한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벤베니스트의 발화 이론 중 특히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instance de discours'라는 개념이다. 언어학자들은 흔히 “발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랑그의 담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Benveniste, 1974: 81)는 벤베니스트의 말에 따라 'instance de discours'를 ‘담화 현실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그의 이론에 비추어보면 정당하게 보인다——“'instance de discours,' 즉 화자가 랑그를 파롤로 현실화시키는 불연속적이고 이를 행사할 때마다 매번 일회적인 행위”(Benveniste, 1966: 251). 그런데 코케는 이 용어가 다른 문맥에서 사용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내적 지시의 중심 *centre de référence interne*’이라는 의미로서의 'instance de discours'이다——“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instance de discours'는 내적 지시의 중심을 이룬다”(Benveniste, 1974: 82). 따라서 코케가 사용하는 'instance'는 벤베니스트가 쓴 의미에서의 현실태라는 의미도 아니고 프로이트가, 예컨대 『꿈의 해석』에서 점열 기능을 행사하는 ‘초자아의 심급 *instance du surmoi*’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처럼 재판의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다. 코케는 'instance'를 쿤틸리아누스가 현재를 *tempus instans*, 즉 “지금에 닿을 내리고 있는 시간 *le temps ancré(in-) dans le maintenant*”(Coquet, 1993: 10)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다 *se tenir dans*’라는 뜻의 라틴어 ‘in-stare’와 연관시킨다(Coquet, 1992: 47). 우리가 'instance'를 기원이라고 옮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코케에게 발화 기원은 “언어적 매체를 통해 실현되었든,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매체를 통해 실현되었든, 일체의 담화 산출의 원리”(Coquet, 1988: 106)이다. 따라서 벤베니스트가 그랬었고 또한 그의 발상을 이어받은 언어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발화를 구어적인 면 *oralité*에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무용수는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중심’이라는 안무가 커닝햄 Cunningham의 정의에 따르면 비언

어적인 행위에도 발화 기원이 존재하는 것이다(Coquet, 1983: 10; 1984: 9). 아울러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사실이 있다. 비록 코케가 “담화를 활동중의 언어, 그리고 반드시 대화 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Benveniste, 1966: 258)이라는 벤베니스트의 말을 중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벤베니스트의 생각을 이어받은 화용론자들 처럼 이른바 발화 상황이나 화맥이라는 개념을 그의 이론에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는 발화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설명적 가치 *valeur explicative*를 결코 그러한 요소들에서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가 그레마스의 기호학과 대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호학에 전혀 이질적인 언어 외적인 상황을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Le président a-t-il transmis le dossier à la commission?” (의장은 서류를 위원회에 회부했나요?)이라는 의문문을 보자. 이 문장을 읽은 사람은 이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 프랑시스 자크는 “이러한 의미의 불확정적인 상태는 이 문장을 산출한 대화 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비로소 제거된다”(Jacques, 1983: 69)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예의 의문문을 설명하기 위해 자크가 설정하는 담화의 상황을 들어보자.

A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서 B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자. 이것은 A가 비록 B가 어떤 대답을 할지는 모르지만 B가 적어도 이 질문이라는 형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A의 질문은 만일 그가 B에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정보를 B로부터 얻고자 하는 시도를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언어학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의 한계는 문장인데 위의 예는 문장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생성한 묵시적 *implicite*인 발화 조작 *opération énonciative*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

을 때 그 설명적 가치를 담화에서 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허다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베랑도네는 의미 해석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거의 모두 'Y형 도식 *schéma en Y*' 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 베랑도네에 따르면 'Y형 도식'은 "두 부분으로 분절되는데, 그 한 부분은 본질적으로 언어적인 것으로 랑그에 속한 언술들의 명시적인 기의를 표현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고, 다른 한 부분은 언어 외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달이라는 사건내에서 언술 밖에 발현된 묵시적인 언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일을 담당한다" (Berrendonner, 1981: 11). 그런데 역시 베랑도네에 따르면 이 도식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도식은 의미 현상을 근본적으로 두 부류(명시적 의미와 묵시적 의미)로 양분함으로써 하나의 동일한 사실(언어 행위, 이러저러한 정보, 수사적 효과 등)을, '일반화에 도달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때론 언어적 부분의 산물로 때론 언어 외적 부분의 산물로 기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ibid.*, p. 13) 약점을 갖고 있다. 이와 아울러, 많이 지적되고 있는 바이지만, 화용론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발화 상황이 대부분 자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실례로 켈리올리가 'On achève bien les chevaux!' (말도 죽여주는데 하물며!)란 문장에 가한 주석을 들어보자. 켈리올리는 이 문장에서 'bien'이라는 표지를 통해 'puisque - alors'라는 논리적인 도식을 유도한 다음 이 문장에 대해 "우리는 쉽게 (특히 영화를 보았다면 더더욱) '그렇다면 왜 사람은 안 된단 말인가?' '말도 죽여주는데, 왜 사람은 (죽여주지 못한단) 말인가?' 등등의 명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만일 예의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alors*' 다음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표현은 수적으로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수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발화 상황을 포함할 수 있는 사실 효과 *effet de réalité*를 피하려면 가변적인 발화 상황보다는 불변한

3) A. Culioli, "Valeurs modales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in *Modèles linguistiques*, P.U.L., 1979, Tome 1, fasc. 2(Coquet, 1983: 10~11; Coquet, 1989: 94).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이다. 왜냐하면 의사 전달은 텍스트라는 씌어진 것이 부과하는 “거리 속에서 그리고 거리를 통해서”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는 담화 상황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석 대상이다.

4. 제 3 행동자 혹은 발령자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은 비록 벤베니스트의 발화 이론에서 그 발상을 얻어왔지만 그의 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화문에 흔적을 남긴 발화 변수로부터 발화 조작을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자의 가장 추상적인 계층’에 자리잡은 ‘담화의 중심,’ 즉 발화 기원을 찾아내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다 (Coquet, 1991: 201). 이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Oedipe voulait épouser sa mère”라는 명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문장은 이오카스테가 자기 어머니임을 모르는 외디푸스의 믿음 세계에서는 거짓이고, 이 사실을 아는 화자의 믿음 세계에서는 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화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어에서 제도 표현의 어휘 II』에서 라틴어의 ‘신권 *droit divin*’을 의미하는 ‘*fas*’와 ‘말하다’를 의미하는 ‘*far*’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확립한 벤베니스트의 논증을 빌리겠다 (Benveniste, 1969:

4) P. Ricoeur, “La fonction herméneutique de la distanciation,” *Exegesis*, 1975 (Coquet, 1988: 94에서 재인용): “텍스트는 내재는 인간 상호간의 의사 전달의 특수한 예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의사 전달에 있어서 거리 부여의 패러다임 *paradigme de la distanciation*이다. 이러한 자격으로 텍스트는 인간 경험의 역사성 자체의 성격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인간 경험은 거리 속에서 그리고 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이다.” 아울러 마르탱의 다음 말을 참고할 것: “텍스트는 적어도 단편적 이나마 상황적인 여건을 명시해준다. 그리고 재해석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안표되는 것도 바로 텍스트 속에서도이다” (Martin, 1992: 259).

133~42). 벤베니스트에 따르면 이 두 동사는 우선 형태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이 갖는 종교적인 의미에 의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far'는 고대 라틴어에서 역시 '말하다'를 의미하는 *for에서 유래하는데, '말하다'를 의미하는 많은 표현 가운데서도 *for는 특수한 의미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단어는 후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파생어를 낳았다. 우선 *for의 현재분사 'infans'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저령의 아이'를 뜻한다. 거꾸로 분절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의 발현, 개체화된 인간성의 발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화·우화·전설'을 뜻하는 'fabula', '다변가'를 뜻하는 'facundus' 등이 파생한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성·소문'을 뜻하는 'fama'는 다른 특질, 즉 개체화되지 않은 말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벤베니스트는 'fama'가 그리스어에서는 역시 '소문'을 뜻하는 phéme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phéme는 비개인적 impersonel인 말, 그러니까 신적인 성격을 갖는 말, 제우스의 의지의 발현을 뜻한다. 소포클레스의 『외디푸스 왕』에 나오는 phéme thōn(phéme des dieux)은 바로 신탁을 지칭한다. 따라서 그리스어의 phéme와 이에 대응하는 라틴어의 *for는 근원적으로 신의 말씀의 발현을 뜻한다. 이로써 *for에서 파생된 개인화한 말, 개인화하지 않은 말, 비개인적인 말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뚜렷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신의 말씀은 비개인적인 것이고, 무엇인가 어렴풋하고, 어린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말이 신비하듯,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한다. 아울러 *for의 현재분사로 '운명'을 뜻하는 'fatum'은 "인간에게 근원을 두고 있지 않은 발화[……] 초인간적인 근원으로부터 무엇인가 신비하고 숙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발화"(p. 139)이다. 고대인들은 phemi와 *for를 통해 말의 기원이 신적인 것임을 사고했던 것이다. '신권'을 뜻하는 'fas'는 바로 *for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그 종교적 의미를 취한다. 'fas est'는 부정부절과 함께 쓰이면 il y a fas, le fas existe que(제신들이 원하는

것)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제신(諸神)의 정언적(定言的) *impératif* 인 말쑤으로 이루어진 발화'를 뜻한다. 즉 비인격적인 말을 통해 신들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fas'는 '제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따라서 '신권'이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Oedipe voulait sa mère'를 일종의 신탁으로 간주한다면 표면적으로 'vouloir'로 표현되고 있는 외디푸스가 갖고 있는 의도는 실상 그 기원이 신에게서 비롯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의지에 의해서 외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인 이오카스트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숙명지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의 명제를 묵시적인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화자는 신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출처가 분명한 예를 통해 발화 기원을 설명해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신의 의지에 의해 예정된 운명 *prédestination*의 표현이 단어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문법 범주를 통해 나타난 경우를 보자. 이것은 불어의 단순 미래의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라틴어의 우언법 미래 *futur périphrastique*인 *habeo*+부정법이다. 이 예 역시 우리는 벤베니스트로부터 빌리고 있다(Benveniste, 1974: 126~34; Coquet, 1984: 62~63). 흔히 라틴어 미래 시제형은 우언법 미래를 매개로 로마어의 미래 시제형을 거쳐 불어의 단순 미래가 되었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벤베니스트는 결코 미래 시제 *cantabo*가 *cantare habeo*로 대체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문제의 우언법 미래의 형태와 의미를 부과하는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우언법은 기원 후 3세기초 카르타고에서 성경을 번역한 테르툴리아누스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과 작가들이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런데 종교적인 텍스트에서 우언법을 통해 표현되는 사건은 단순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후자가 유생물 주어의 의도를 통해서 실현된 사건을 표현한다면, 전자는 "그렇게 되기로 지정된 대상의 숙명을 지시한다"

(*ibid.*, p. 161). 예컨대 테르툴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한 다니엘의 말을 *praedicavit quoniam ista civitas exterminari haberet*(il prédit que cette ville serait détruite)로 번역했다. 똑같은 사건을 일세기 후 로마의 불가트 판은 단순 형태로 *civitatum exterminabit*(il détruira cette ville)로 번역할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실현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건의 의미는 단순 형태의 미래를 통해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⁵⁾ 문제의 사건은 주체(여기서는 명시적인 주어인 'ista civitas')의 의지나 주체에게 부여될 수 있는 의도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래할 사건은 필연적이고 비개인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연출하는 자는 누구일까. 테르툴리아누스의 번역에서는 수동부정법 'exterminari'가 전제하는 동작주는 생략되어 있다. 번역자는 아마 이 예언에서 동작주를 구태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묵시적인 동작주는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피동자인 도시에 대해 파괴를 요구하는 초월적인 능력 *pouvoir transcendant*을 행사한다. 문장 주어 'ista civitas'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다. 양상의 차원에서 말하면 동작주의 신분을 구성하는 것이 '능력 *pouvoir*' 이라면 피동자의 신분을 구성하는 것은 '의무 *devoir*'라 할 수 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한 문장에서 벤베니스트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담화 현실태'는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케가 말하는 의미로서의 발화 기원은 존재한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한 다니엘도 아니고 통사

5) 라틴어의 우언법 미래는 산스크리트에서 그 기원을 갖고 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우언법 미래는 -*syā-*로 표현되는데, 이것 역시 장래의 일을 표현하는 보통의 미래시제와 달리 확실히 도래할 사건을 나타낸다. 이 시제는 따라서 시간을 명시하는 표현, 일반적으로 내일을 뜻하는 *śvas prataḥ*와 함께 쓰이고, 예언이나 위협의 성격을 띤 담화에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산스크리트어의 우언법 미래는 어떤 일의 완성을 정해진 기일에 확실히 기대된 것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prataḥ yastā smahe*"는 "내일 아침 우리는 번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다(Benveniste, 1975: 17~18).

적 주어인 도시도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수동 구문이 전제하는 묵시적인 동작주 'il'이다. 이 'il'이 이 발화문의 기원으로 다니엘은 이 발화 기원이 그의 목소리를 빌려준 대리자 *délégué*에 지나지 않는다. 예언의 경우 예언자의 말은 사건을 연출하는 발화 기원 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피동자인 도시에 대해 지배적 관계에 있는 동작주——비록 텍스트에서는 묵시적이지만——를 코케는 '발령자 *destinateur*' 혹은 '제3행동자 *le tiers actant*'라고 부른다. 발령자의 위계적인 지위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양상의 차원에서 말하면, '능력'인데, 이 능력은 이미 확립되어 있고 "어떤 존재자에 의해서도 철회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 (Coquet, 1984: 10)이다. 이 행동자의 위상은, 앞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il*," 즉 '인칭'의 부재로서 부정적으로 정의된다" (Coquet, 1987b: 15). 발령자는 독립적인 공간에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의 외부에 있는 일체의 원인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Coquet, 1984: 170). 아울러 예루살렘의 파괴를 명하는 앞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령자는 자신의 결정을 대리인을 내세워 수행문 *énoncé performatif*을 통해 표현한다. 그리하여 발령자는 인간에게 필연적인 법칙이나 의무를 강요하는, 예컨대, 신·사회·법·역사·자연·운명·아버지(흔히 외국어에서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등의 실체로 나타난다. 아울러 발령자는 발화자가 발화의 기원을 발령자에 두고 발화할 때 그의 담화에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 *vérité universelle et éternelle*'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실례를 성경에서 들어보자 :

1)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 14: 10)

2)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 20)

여기서 발화자(‘나’라고 말하는 자)인 예수는 자신의 발화 기원을 발령자에게 관련지음으로써 자기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목소리, 일종의 대리자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발령자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일 수 있다.

3) 나는 [……] 진리다. (Coquet, 1984: 187~88)

5. 술어화 · 단언

코케의 이론에서 보통 기호학에서 발령자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제 3 행동자라는 용어는 테니에르 Lucien Tesnière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 1 행동자 *le prime actant*’ ‘제 2 행동자 *le second actant*’도 존재할 텐데, 이것은 각각 주체 *sujet*/비주체 *non-sujet*/대상 *objet*에 해당한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에서 행동자 구조는 발령자 *destinateur*/수령자 *destinataire*, 주체/대상의 4항으로 이루어졌지만, 코케가 세운 행동자 구조는 3항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그레마스의 행동자는 설화의 차원에 속해 있지만, 코케의 경우는, 제 2 행동자인 대상——대상을 너 *tu*로 정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을 제외하면 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담화와 그 주체』에서 코케는 주체와 비주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주로 양상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런데 본 논문은 그의 이론을 벤베니스트의 이론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와 비주체의 구분을 발화의 관점에서 구명해볼 것이다.

발화의 관점에서 주체와 비주체를 구분하는 데 적용되는 개념은 술어화 *prédication* 와 단언 *assertion*이라는 개념이다. 벤베니스트는

클레주 드 프랑스에서 행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언어 속에서는 일체가 술어화이다. 그리고 일체가 존재에 대한 단언이다. [……] 언어라는 기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사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이것을 완전한 명제로, 즉 술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Coquet, 1984: 13). 술어화는 “무한히 창조되고, 끝없이 다양한 문장”(Benveniste, 1966: 154)을 만드는 조작이다. 프로그 학파는 술어화를 “근본적으로 통합체의 활동이며 동시에 문장의 창조적인 활동 자체”(Dictionnaire de linguistique de l'école de Prague, 1929: 64)라고 정의한 바 있다. 벤베니스트도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통합 작용 *syntagmaton*”(Benveniste, 1974: 228~29)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작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견해와도 상통한다. 젊음은 가고 늙음이 찾아온다는 뜻의 “Bonjours lunettes, adieu fillettes”라는 격언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격언이 담고 있는 전체 의미는 각각의 어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의 합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통합 작용을 통해 구축된 의도 *intentié*로부터 파악된다. 여기서 “각 단어는 그것이 기호로 지니고 있는 가치의 한 작은 부분만을 취하지만”(ibid.) 통합 작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 작용은 벤베니스트가 말한 의미에서의 기호론적 의미 작용 방식 *mode sémiotique* 으로부터 의미론적 의미 작용 방식 *mode sémantique* 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 작용은 단순히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a와 b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언도 포함하고 있다. 언어 요소들의 결합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다. 이 점을 설명해보자.

벤베니스트는 「명사문」이라는 논문에서 동사는 발화문내의 요소들을 완전한 하나의 구조로 조직하는 응집적 기능 *fonction cohésive* 과 발화문에 실재의 술어 *prédicat de réalité* 를 부여하는 단언적 기능 *fonction assertive* 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Benveniste, 1966: 154). 동사에 의해 실현된 한정 단언 *assertion définie* 은 발화문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문법적 관계에 '실재의 체계 *système de réalité*' 인 '그것은 ~이다!' 를 묵시적으로 덧붙인다. 단언을 통해 발화문의 내용과 실재는 일치하는 것이다. 실재 — 벤베니스트가 중성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 '무엇인가 *quelque chose*' — 는 외계, 물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정의되지 않은 이 무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 정신분석에 관한 논문에서 벤베니스트는 단언의 항존성을 강조한다. 화자는 부인 *dénégation* 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는 내용 그 자체는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無) *rien* 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발화된 것에 대응한다" (Benveniste, 1966: 85)는 언어의 근본 속성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동사 형식은 두 요소, 즉 의미 표현과 문법 범주에 따라 명시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와 묵시적이고 항존적인 요소인 단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술어화는 이 두 요소로 구성된다. 아울러 벤베니스트는 다른 곳에서 단언은 "발화 속에서 화자의 존재를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것" (Benveniste, 1974: 85)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언을 통해 화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단언은 벤베니스트의 경우에는 발화문 바깥에 있는 두 실재, 즉 언어 외적인 지시 대상과 화자에 대해 가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위에서 논의된 문제를 주관의 기호학에 옮겨서 생각해보자. 통합 작용으로서 술어화는 담화와 그 주체를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작이다. 술어화는 화자가 이를 통해 언어 단위들을 결합하여 문장과 담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통합체의 성격을 갖는 행위이다. 하지만 술어화는 동시에 언어 단위들을 결합하는 화자의 존재를 전제한다. 코케는 화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를 인수하고, 책임지는 것을 단언이라고 한다. 단언은 논리학에서 판단 *jugement* 에 대응한다. 코케의 경우 단언은 "술어화에서 긍정을 나타내는 부문" (Coquet, 1984: 167)이다. 그는 "주어진 언어의 한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작용은 항상 묵시적인 술어화를 전제한다" (Coquet, 1988: 103~04)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코케는 술어화를 ‘발현의 차원(언어 행위)과 내재적인 차원(논리-의미적 행위)’의 결합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논리-의미적 행위는 “발화 행동자가 자신이 산출한 담화를 인수 *assomption* 하는” (Coquet, 1984: 14~15) 단언을 지시한다. 그런데 어떤 발화 행동자가 단언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판단을 갖고 있는 주체이다. 우리는 발화의 관점에서 언어적 주체를 다룬 벤베니스트로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겠다.

6. 제 1 행동자(주체/비주체)와 제2행동자(대상)

벤베니스트는 언어내의 주관성 *subjectivité dans le langage*을 논한 곳에서 주관성을 “주체”로 자처할 수 있는 화자의 능력”(Benveniste, 1974: 260)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주관성은 발화 행위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로부터 그의 유명한 명제, 즉 “나”라고 말하는 자가 ‘나’이다 *Est ego qui dit ego*” (*ibid.*)라는 명제가 비롯한다. 우리는 이 명제를 언어적 주체는 ‘나’가 화자로 지시되는 발화된 발화 *énonciation énoncée*를 통해 확립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케는 행동자가 주체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명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화자가 언어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언어적 행위에 이어 자기 자신의 말을 반성적인 행위 — “자신을 ‘나’라고 말하는 *se dit ego*” — 를 통해 인수하는 단언이나 아니면 타자가 ‘나’를 ‘나’로 정의하는 인지 *reconnaissance*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코케는 발화 행동자가 자신을 주체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동자가 자기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중적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주체를 “나는 나임을 단언한다 *J'affirme que je suis je*”와 “이것이 나의 정체이다 *Voici mon identité*”라는 두 명제로 표현한다.

그런데 앞의 명제에서 주체는 다만 자지시적(自指示的) *sui-référentiel*인 실재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즉, 주체는 그 자체로 정의될 뿐이다. 주체는 여기서 발화를 통한 구축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체는 외부로 향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 세계에 대해 행동함으로써 순수한 반성적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 제2행동자인 대상 세계는 이 경우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주 *support*로 주어진다. 이 단계에서 행동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혹은 코케의 표현을 빌리면, '변형 경로 *histoire transformationnelle*'를 통해 자신을 주체로 구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동자가 참다운 주체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려면 주체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판단을 통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이전에 실행한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비롯하는 자신의 변형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판단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말·행동에 대해 거리를 취하게 하고 동시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역할을 한다. 주체는, 벤베니스트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가 한 행위의 주인" (Benveniste, 1975: 112)이다.

주체를 정의하는 자질이 1) 단언 혹은 단언의 논리적 표현인 판단, 2) 변형 경로라고 한다면 비주체는 이러한 자질의 결여로 정의될 것이다. 비주체는 첫 단계인 반성 행위에서부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단언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자아에 대한 단언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판단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주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거리를 취할 수도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비주체에는 예컨대 펠리니가 각색한 영화 「카사노바」의 주인공처럼 어떠한 술어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 행동자, 클로델의 『도시 *La ville*』의 여주인

공 달라처럼 단 하나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행동자,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해방자,' '정의의 사도'처럼 '자신의 기능에 동화된' 행동, 즉 틀에 박힌 행동만을 하는 행동자가 속한다. 펠리니의 카사노바의 경우 그의 프로그램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유형의 비주체들이 행하는 프로그램은 제한되어 있고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주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주체를 정의하는 기준을 언어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통사 기능에 연결시킨다거나, 벤베니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담화 현실태를 나타내는 대명사의 존재에 둔다면 주체에 대한 논의는 극히 형식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 기준을 판단 행위에 둬으로써 주체는 의미적인 규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언어가 주체와 비주체의 의미적 대립을 동작주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예컨대, 역시 벤베니스트의 지적에 따르면, '주는 사람'을 뜻하는 똑같은 동작주 범주를 산스크리트어는 강세 변화를 통해 *dātar*와 *datár*, 그리스어는 모음 교체를 통해 *dōtor*와 *dotér*의 두 유형으로 표시한다고 한다(Benveniste, 1975: 62). *dātar*와 *dōtor*의 유형에 속하는 행동자는 '자신이 성취한 행위를 통해서 지정되고 이 성취한 행위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자'이다. 즉 한 개인이 시공간의 어느 일 점에서 무엇인가를 타인에게 주었을 때 그는 *dātar*, *dōtor*가 된다. 그는 자기 행위의 주인 *auteur*이다. 이에 반해 *datár*와 *dotér*는 '숙명·적성·필연성' 때문에 주는 행위를 자신의 천직으로 삼고 있는 행동자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앞의 경우에서처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행사되고 있는 반복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자를 벤베니스트는 동작주 *agent*라고 부른다. 즉 첫번째 유형에 속하는 행동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판단력을 갖고 있으므로 주체이다. 하지만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행동자는 미리 짜여진 행위만을 하는 기능

인이기 때문에 비주체다.⁶⁾ 이 기준에 따라 벤베니스트는 에스킬러스의 프로메테우스의 정체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점에서 *dōtor*, 즉 주체다. 그런데 그는 인간에게 불을 주는 행위를 자신의 역할로 삼음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작주로 제시한다. 즉 그는 *dotér*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참회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운명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언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운명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언할 때' 그는 제 3 행동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아울러 그가 자신을 숙명에 따라 '불을 주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은 자'로 자처할 때 그는, 코케의 용어로 풀이하면, 비주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이다.

비주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우리는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테레즈 데스케이루 *Thérèse Desqueyroux*』를 예로 들어보겠다. 소설의 여주인공은 남편 베르나르의 독살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남편이 먹는 약에 치사량의 비소를 넣은 것은 알고 있지만 과거를 거슬러올라가보건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근처에 자신도 해명할 수 없는 부분, 화자의 표현을 빌리면, '불투명한 영역 *région in-déterminée*'이 있음을 깨닫는다. 예컨대 테레즈는 자신의 의지와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내 죄를 모른다. 남들이 내게 뒤집어씌우는 그 죄를 나는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 꿈틀거리던 이 광포한 힘이 무엇을 향해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 힘이 나아가며 파괴한 것에 나 자신도 겁이 나지 않았던가 [……] (Mauriac, 1927: 22)

6)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 증인을 의미하는 *istor*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아는 자를 의미하지만, *optér*는 임무·적성 혹은 필연에 의해 보는 자, 즉 파수꾼·스파이를 의미한다.

테레즈는 자신의 범죄를 수임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행위의 주체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다스릴 수 없는 어떤 '광포한 *forcené*' 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하자면 이 힘에 의해 조종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주체의 출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비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

우리 인생의 가장 순결한 이 새벽에 가장 끔찍한 폭풍우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진실, 그것은 오후와 저녁의 날씨에 대한 불길한 징조다. 폭풍우는 망가진 화단,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저 진흙탕을 예고한다. [……] 테레즈는 그녀의 어떤 시기에도 반성을 해본 적도 없고 미리 숙고한 일도 없었다. 그녀는 극히 완만한 내리막길을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내려갔던 것이다. (pp. 27~28)

앞의 예에서 테레즈의 내부에 있는 불합리한 힘이 그녀로 하여금 남편을 독살하는 데까지 몰고 가는, 이를테면,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의 지배를 받는 힘이라면, 지금 든 예는 그녀의 외부에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힘, 말하자면 우리의 지배를 벗어난 운명과 같은 힘이다. 이 예정된 테레즈의 운명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발령자의 개입을 본다. 그리고 이 발령자에 대해 테레즈는 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 *pente*'이라는 구상적인 표현은 발령자의 지배력에 무의지적으로 따르는, 즉 판단이 결여된 비주체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테레즈는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이 두 가지 힘의 지배를 받아서 남편을 독살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화자는 작품 여기저기에서 불가항력의 힘의 지배를 받은 테레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테레즈는 더 이상 살퍼볼 것이 없었다. 그녀는

딱 벌어진 범죄 속에 빠져버리고 만 *s'engouffrer* 것이다”(p. 114). 범죄의 순간 판단을 상실한 테레즈는 “홀로 터널 속을 현기증을 느끼며 통과하고 있었다”(p. 115), 혹은 “그 여자는 어떤 심오한 법칙, 어떤 준엄한 법칙에 따랐다”(p. 135)라고 묘사된다. 훗날 테레즈 자신도 “나는 끔찍한 의무에 굴복했다”(p. 178)라고 베르나르에게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판단이 상실한 비주체의 상태는 행동자의 논리적인 행동과 어떠한 논리적 연계도 맺을 수 없으므로 주체의 행정에 틈 *faillie* 을 생기게 한다. 테레즈가 남편을 독살할 당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⁷⁾

7. 이원적 관계와 삼원적 관계

코케는 “술어화는 단언과 결합하여 하나의 발화 기원을 이룬다”(Coquet, 1987a: 97)고 했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체와 비주체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단언 혹은 판단의 유무라면, 주체의 경우에는 술어화에 있어서 단언이 수반되고, 비주체의 경우에는 단언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화 행동자의 정체는 가변적이다. 그것은 어떤 시공간의 일 점에서는 주체일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비주체일 수 있다. 아울러 주체와 비주체는, 에스킬러스의 프로메테우스나 모리아크의 『테레즈 데스케이루』에서 본 바와 같이, 발령자의 영향권 안에서 그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발령자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대상과 관계하는 경우도 있다. 코케는 발령자가 중심이 되어 제1행동자와 제2행동자를 지배하

7) 자네 Janet의 다음 말을 참고할 것: “광기의 발작이 지나간 다음 환자는 발작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발작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가 기억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P. Janet, *L' évolution de la mémoire et de la notion de temps*, p. 224; G. Bachelard, 1950: 50에서 재인)

는 행동자 구조를 '삼원적 관계 *relation ternaire*' 라 하고 발명자가 배제된 두 행동자만의 자유로운 관계에 의한 행동자 구조를 "이원적 관계 *relation binaire*" 라고 부른다(Coquet, 1984: 49). 주체 혹은 비주체가 어떤 행동자 구조에 속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즉 삼원적 관계는 의무·필연·운명 등이 지배하는 위계 관계가 분명한 세계이고, 이원적 관계는 행동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평등한 세계이다. 코케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대목을 분석한 것을 통해 주체가 어떠한 변형 경로를 겪는지 살펴보자. 코케가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옷을 벗고 자리에 눕고 알베르틴이 침대 한구석에 앉으면 우리는 입맞춤 때문에 중단된 놀이나 대화를 계속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존재와 성격에 관심을 갖게 하는 유일한 것인 욕망에 있어서 우리의 본성에 너무도 충실하다. 그래서, 실령 그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버린다 하더라도, 한번은 '내 귀여운 아기' 라고 부르면서 알베르틴에게 키스를 하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의 그 슬프고 정열적인 내 얼굴의 표정은, 이전 생각도 나지 않는 질베르트 곁에서 예전에 지었을 법한, 그리고 알베르틴을 잊게 되면 아마 어느 날 다른 여인 곁에서 지을지도 모를 그 표정은 나로 하여금 나는 지금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을 초월하여(본능은 현재의 여성을 유일한 참된 여성으로 여기게 하지만) 열렬하고 고뇌에 찬 의무를 마치 봉헌물인 양 여인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바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런데 '봉헌물'로 젊음을 숭배하는 이 욕망에는(……)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이제껏 내 삶에서, 아니 적어도 내 애정 관계에서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콩브레에서 지내던 머나먼 밤, 어머니가 내 침대 위에서 몸을 굽히며 한 입맞춤 속에 편안함을 가져다준 이후 내가 한 번도 비슷한 것을 느

겨보지 못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힘이었다.⁸⁾

여기서 거울은 단지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반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거울은 변형 조작자의 기능을 갖고 있다. 거울은 거울을 바라보는 화자에 대해 또 하나의 다른 타자, '슬프고 정열적인' 얼굴의 표정을 띤, 즉 정념 *passion*에 사로잡혀 있는 타자를 출현시킨다.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타자는 여인의 숭배를 자신의 의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비주체 *non-sujet fonctionnel* — '자신의 기능에 동화된' 행동만을 하는 행동자 — 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과거의 이 시점에서 자신의 얼굴 표정이 슬프고 정열적이라고 판단하는 화자는 주체의 지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 시점에서 화자는 이중으로 분열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거울은 두 영역, 그러니까 주체의 영역과 비주체의 영역을 갈라놓는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거의 체험을 묘사하는 현시점에서 화자는 과거의 체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분열된 자아의 두 신분에 따라 대응하는 대상의 지위도 다르다. 주체에게는 애무의 대상, 포획 *capture*의 대상이었던 것이 비주체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비주체가 숭배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알베르틴이 아니라 정관사 'la'로 일반화된 "여인의 젊음과 아름다움 *la jeunesse et la beauté de la femme*"이다. 이 여인에 대한 숭배, 의무는 거꾸로 비주체가 초월적인 능력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신자처럼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신 — 예전에 '입맞춤 속에 편안함을 가져다준'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된 — 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평화를 얻는다. 비주체를 보호해주는 이 행동자 속에서 우리는 코케가 말하

8) M.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II, Gallimard, pp. 76~77. 이하 분석은 Coquet, 1988, pp. 96~98을 따랐음.

는 제3행동자를 보게 된다. 아울러 대상의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화자와 알베르틴도 상호 주관적인 *intersubjectif* 이원적 관계에서 삼원적인 관계로 이행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개인적이며 비속한 영역에서 일반적이고 성스러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8. 맺는 말

장-클로드 코케에 따라 우리는 의미 세계를 지금까지 언급한 세 행동자를 통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루스트의 작품의 한 단편을 분석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자들의 지위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분석은 위상의 변화에 따라 행동자가 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이행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코케의 주관의 기호학은 비록 그레마스의 이론처럼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체계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주체의 위상의 변화를 미세하게 포착함으로써 시간·공간의 분석에 있어서나 인식 주체와 대상의 관계(Coquet, 1984b), 이념적인 담화 분석(Coquet, 1987c)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를 내놓았다. 이 점은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기호-설화 계층 부문은 거의 완벽하게 규명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담화 계층의 분석에서는 단순한 도구밖에는 확보하지 못해서 담화의 역동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담화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를 확보하는 일은 주관의 기호학뿐만 아니라 객관의 기호학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연세대 불문과 조교수]

참고 문헌

- Arrive, Michel et al, *La grammaire d'aujourd'hui*, Flammarion., 1986.
- Bachelard, Gaston, *La dialectique de la durée*, P.U.F., 1950.
- Benveniste, Emil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 , *Le vocabulaire des institutions indo-européennes* II Minuit, 1969.
- ,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 , *Nom d'agent et nom d'action en Indo-européen*, Maisonneuve, 1975.
- Brendonner, Alain, *Éléments de pragmatique linguistique*, Minuit, 1981.
- Coquet, Jean-Claude, *Sémiotique littéraire*, Mame, 1973.
- , "Sémantique du discours et analyse du contenu," *Connexions* II, Epi, 1974.
- , "Les modalités du discours," *Langages*, n° 43, Larousse, 1976.
- , "L'implicite de l'énonciation," *Langages*, n° 70, Larousse, 1983.
- , *Le discours et son sujet* I, *Essais de grammaire modale*, Klincksieck, 1984.
- , "La bonne distance," *Actes sémiotiques-documents*, Groupe de Recherche Sémio-linguistique VI, 55, 1984b.
- , *Le discours et son sujet* II, *Pratique de la grammaire modale*, Klincksieck, 1985.
- , "Instance d'énonciation et modalités," *Cahiers du DSLI*, Université de Lausanne, 1987a.
- , "Linguistique et sémiologie," *Actes sémiotiques-documents* IX, 88, 1987b.
- , "Sémiotique et histoire," *Protée*, Vol XV, 3, Chicoutimi, Québec, 1987c.

- , "L'être et le passage d'une sémiotique à l'autre," *TLE*, n° 6, Université Paris VIII, 1988.
 - , "Temps ou aspects? le problème du devenir," in *Le discours aspectualisé*, Pulim/Benjamins, 1991a.
 - , "Réalité et principe d'imminence," *Langages*, n° 103, Larousse, 1991b.
 - , "Note sur Benveniste et la phénoménologie," *Linx*, n° 26, Paris X, 1992.
 - , "Temps et phénoménologie du langage," *Sémiotiques*, n° 5, Didier, 1993.
-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de la Prague*, Utrecht/Anvers, 1929, 3ième édition.